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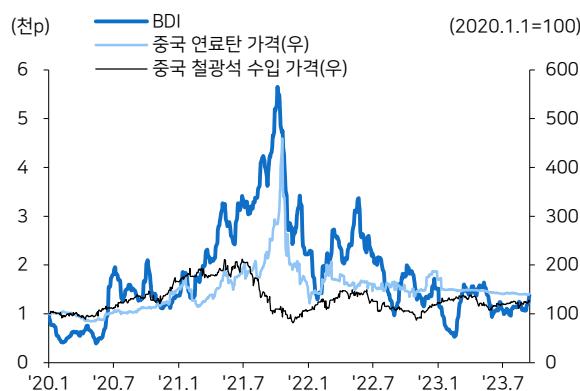
2023. 9. 20 (수)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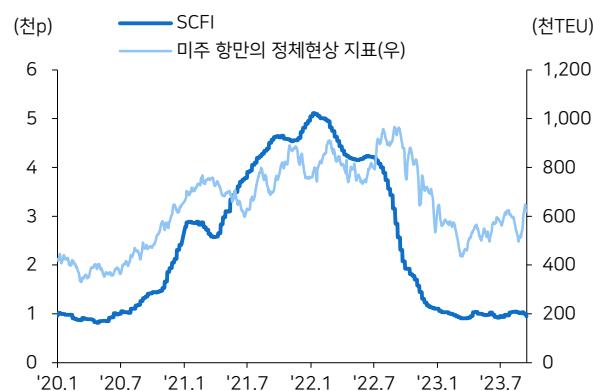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1,526.0p(+8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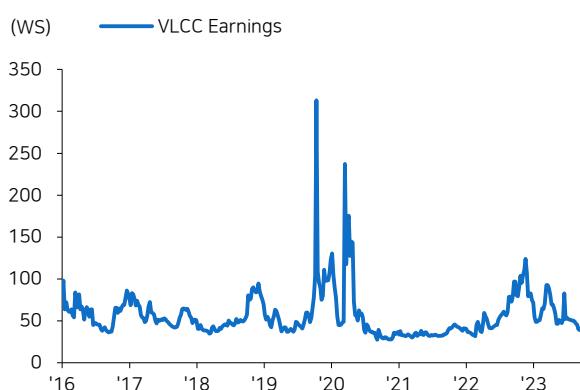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948.7p(-5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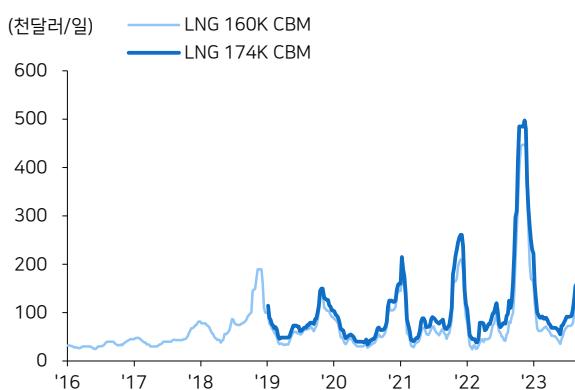


## VLCC Spot Rate

39.3p(+0.3p WoW)



## LNG Spot 운임

205.0천달러(+31.3천달러 WoW)  
257.5천달러(+37.5천달러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4.6p(+0.4p WoW)  
149.2p(+0.1p WoW)

## 중국 내수 후판가격

549.0달러(+2.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산은 국회 보고...HMM 매각가 '최소 7조' 잠정산출

산업은행이 HMM 예상 매각가를 최소 7조원으로 잠정 산출했다고 보도됨. 경영권 프리미엄을 20%로 책정하면 매각가가 8.4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알려짐. 산업은행은 입찰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짐. (블로터) (<https://t.ly/KyMrP>)

### 'HMM 인수전 등판' JKL, 롯데손보 매각 눈높이 낮추나

하림그룹과 컨소시엄을 꾸려 5조원에 달하는 HMM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통한 인수 자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2019년부터 롯데손해보험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짐. 주당 평균 투자액은 3,052원 수준인데, 18일기준 주가는 2,390원 수준으로 언급됨. 또, 시장점유율과 최근 수년간 실적이 계속 부진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고평 가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매도자와 원매자의 눈높이 차이가 클 전망으로 알려짐. (블로터) (<https://t.ly/Bq7Dl>)

### 김재철 동원 회장 "HMM 인수는 마지막 꿈"

김재철 동원 회장이 한양대에서 열린 명예공학박사 학위 수여식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HMM 인수에 성공하면 마지막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됨. 동원그룹은 HMM 인수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알려짐. 해운업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SM상선을 이끈 현대상선(현 HMM) 출신 박기훈 전 SM상선 대표를 영입하기도 했다고 알려짐. (한국경제) (<https://tinyurl.com/3xtyh9p8>)

### CMES, 세계 최초 메탄을 추진 VLCC 발주

China Merchants Energy Shipping(CMES)가 Dalian Shipbuilding에 세계 최초 메탄을 DF 306,000DWT급 VLCC 1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납기는 2026년 4월까지고 선가는 1.75억달러로 알려짐. 표준 연료 VLCC 선수가 1.28억달러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선가는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https://tinyurl.com/mw5v2enu>)

### Petrobras and Sonangol say 'no' to IEA climate change guideline on new oil investment

브라질 Petrobras와 앙골라 Sonagol이 IEA의 로드맵을 따라 화석연료 개발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됨. Petrobras는 브라질, 가이아나 등 국가별 에너지 전환은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함. 한편, 2021년 5월, IEA는 현재 전세계 국가들이 내세는 친환경 목표를 이행해도, 2050년 탈탄소를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https://tinyurl.com/jyb5k6mf>)

### Ukraine reaches gas storage target ahead of schedule

우크라이나의 가스 생산 및 공급업체인 Naftogaz Ukrainy에 따르면 겨울을 대비해 충분한 천연가스 재고를 확보했다고 보도됨. 10월 1일 기한보다 더 빨리 14.7BCM(십억큐빅미터)을 비축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짐. 해당 저장소는 약 31BCM을 저장할 수 있다고 알려짐. (Upstream) (<https://tinyurl.com/3w845pp6>)